

제 1 교시

언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학생의 발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큰일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 ②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 ③ 사물을 달리 볼 수 있는 열린 사고가 중요하다.
 - ④ 남의 잘못을 감싸 줄 수 있는 넓은 아량이 필요하다.
 - 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묵묵히 실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2. (물음) 드라마에서 마지막에 이어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80여 리쯤 가야겠군.
- ② 산도 넘고 물도 건너야겠군.
- ③ 뱃길이 닿지 않으니 걸어가야겠군.
- ④ 가는 길에 성이 있는 고을이 없겠군.
- ⑤ 신계사 쪽에 비하여 비교적 길이 편하겠군.

3. (물음) 강연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미오글로빈은 근육 속에서 산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 ② 산소와 결합한 헤모글로빈은 근육 속에서 미오글로빈으로 바뀐다.
- ③ 육상 동물이 역센 근육을 지닌 것은 중력을 이겨 내기 위해서이다.
- ④ 어류의 살이 하얗게 보이는 것은 미오글로빈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 ⑤ 미오글로빈은 철을 포함하고 있어 산소와 결합하면 붉은 색을 띤다.

- [4~5] 들려 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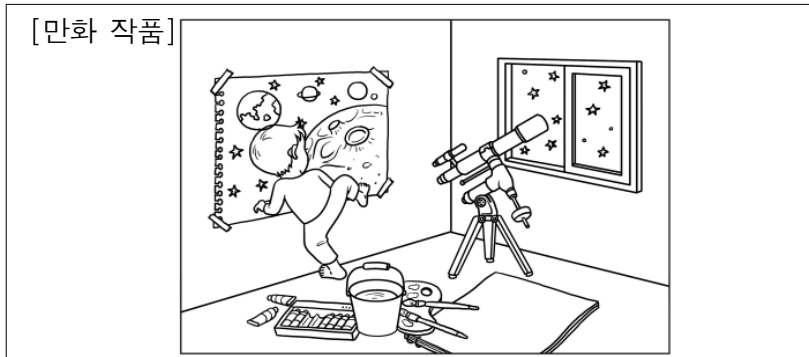
4. (물음) 대담을 들은 청취자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반인: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 ② 기탁자: 저희가 부담 없이 의약품을 기탁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 ③ 봉사 단체 관계자: 방송을 듣고 지원받고 싶은 단체가 더 늘어날 텐데 의약품이 골고루 지원되어야 할 거예요.
 - ④ 기탁 의약품 사용자: 기탁하는 의약품의 유통 과정이 잘 관리되어야 저희가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약품 공급 정보망 사업의 이점과 시행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우리도 실시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겠어요.

5. (물음) 여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상대방의 답변을 해석하며 관련된 질문을 던지고 있다.
- ② 대담의 취지를 밝히며 구체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 ③ 유사한 질문을 반복하여 화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상대방의 답변에 의문을 제기하고 실제 사례를 요구하고 있다.
- ⑤ 대담의 속도를 조절하며 화제에서 벗어난 답변을 제지하고 있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만화 작품을 보고 메모한 내용에 착안하여 ‘글쓰기와 삶’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고자 한다. 이끌어 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메모] 한 아이가 자기 방 안에 있다. 그 아이는 망원경을 통해 우주를 보았고, 그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는다. 아이는 가 보고 싶은 별의 모습을 직접 그려 본다. 그리고 자기가 그린 그림 속 우주의 한 행성에 발을 디딘 것처럼 즐거워한다.

[이끌어 낸 내용] ㉠ 사람은 자신이 속한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 때로는 ㉡ 간접 경험을 통해 자신이 속한 세계 너머를 볼 수 있다. 그리고 ㉢ 자신이 꿈꾸는 세계에 대해 글을 써 보기도 한다. 글을 쓸 때에는 ㉣ 그 글을 읽게 될 사람들의 요구를 예측해 보게 된다. 결국 ㉤ 글쓰기란 자신의 세계를 넘어서보는 적극적이고 행복한 경험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7. <보기>는 ‘도로 교통 현안’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이를 활용하여 이끌어 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보도 자료」의 일부

도로 교통량의 증가와 자동차 과속으로 인해 야생동물이 교통사고로 죽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생태 통로를 건설하였으나, 동물의 행동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기대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나) 도로 교통 지표 추이

구분	2001년	2003년	2005년
도로 연장 (km)	2,599	2,659	2,850
차량 대수 (천 대)	12,914	14,586	15,396
교통 혼잡비용* (십억 원)	21,108	22,769	23,698

* 교통 혼잡비용: 교통 혼잡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다) 자동차 배출 가스의 오염 물질 농도
- 1 km 주행 시 일산화탄소(CO)의 농도

속도 (km/h)	승용차 (ppm)	트럭·버스 (ppm)
10	2	8
40	1	3
70	1	2
100	1	2

- ① (가)+(나):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를 신설할 때에는 동물의 행동 특성을 고려한 생태 통로를 만들 필요가 있다.
- ② (가)+(다): 자동차 속도를 줄일수록 야생동물의 교통사고와 배출 가스의 오염 물질 농도가 줄어든다.
- ③ (나)+(다): 교통 혼잡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자동차 배출 가스의 오염 물질 농도를 증가시킨다.
- ④ (나): 도로가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혼잡비용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 ⑤ (다): 자동차의 배출 가스에 함유된 오염 물질의 양은 차량 종류 및 속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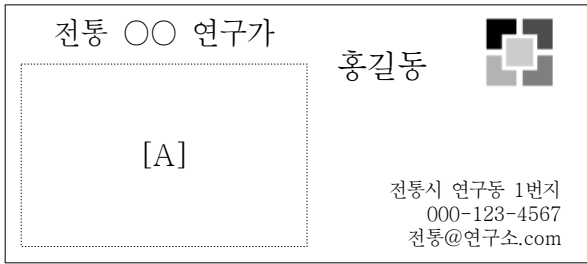
8. <보기>는 ‘소비자 권익 증진’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개요이다. 수정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I. 문제 제기
- II. 소비자 권익 침해의 실태와 그 원인
 - 1. 실태 ㉠
 - 가. 상품 선택권 제약
 - 나. 부실한 피해 보상
 - 2. 원인
 - 가. 사업자 간 경쟁의 부재
 - 나. 소비자 의식 교육 기회 부족
 - 다. 불합리한 피해 보상 절차 및 제도 ㉡
- III.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대책
 - 1. 사업자 간 경쟁의 활성화 ㉢
 - 2. 소비자 의식 교육 기회 확대
 - 3. 소비자 구제 제도의 내실화 ㉣
 - 가. 소비자 보호 기관의 역할 강화
 - 나. 사업자 감독 기관과의 정책 연계
- IV. 소비자 의식 함양을 통한 소비자 권익 증진 ㉤

- ① 글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의 하위 항목으로 ‘소비자 상품 선호도의 변화’를 추가해야겠어.
- ② ㉡은 ‘II-1-나’와 중복되므로 생략해야겠어.
- ③ ㉢은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므로 ‘사업자 간 경쟁의 규제’로 바뀌어야겠어.
- ④ 논리적 일관성을 고려해 ㉣을 ‘소비자 피해 실태 조사를 위한 기구 설치’로 바뀌어야겠어.
- ⑤ 주장을 요약하여 강조하기 위해 ㉤을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대책 촉구’로 바뀌어야겠어.

9. 수행 평가 과제로 장래의 명함을 만들고자 한다. [A]에 들어갈 문구로 <보기>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것은?



- <보 기>
- 전통문화를 언급할 것
 - 공감각적 표현을 활용할 것
 - 청유형 문장을 사용할 것

- ① 여기 있습니다, 달콤한 햇살의 속삭임이 머무는 집. 우리의 몸과 마음을 쉬게 합시다.
- ② 우리 부엌으로 오세요. 진정한 우리의 맛을 느껴봅시다. 고향의 된장 떡배기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 ③ 옷이 아닌 멋을 입는다. 저고리, 마고자, 외씨버선, 우리 맵시 찾아 10년. 이제 당신의 것이 됩니다.
- ④ 가야금 곡조 따라 광한루까지. 춘향의 마음과 어우러지는 옥빛 소리 한 자락, 우리 연구소에서 즐겨봅시다.
- ⑤ 학을 품은 달 향아리, 자라 모양 청자연적. 둥근 곡선 따라 흐르는 영롱한 빛을 당신의 마음에 새겨드립니다.

10. 다음은 교과 카페에 올릴 수업 일기의 초고이다. 고치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수업 일기

일시	○월 ○일 3교시	이름	○○○
<p>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자신을 변화시켜야 하는 현대인에게 느낌은 곧 계몽으로</p> <p>① 비추기도 한다.</p> <p>오늘은 선생님께서 독일의 어느 성당에서 연주되고 있는 오르간 악보를 하나 보여 주셨다. ㉠ 얼마 전 영화에서 본 오르간 연주 장면이 생각났다. 거기에는 각 음표에 연주를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가 지정되어 있었다. 첫 음이 2003년에 시작되어 2005년에 끝나고, 다음 음이 2004년에 시작되어 2006년에 끝나는 식이었다. 이렇게 연주하여 그 곡을 다 마치기까지는 639년이나 걸린다고 한다. 선생님께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느낌에 대해 한 번쯤 ㉡ 생각해 보게 하는 시도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p> <p>오늘도 그 성당에서는 오르간 소리가 이어지고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 그곳에 가서 그 연주를 ㉢ 들었다면 내 마음도 조금은 여유로워질지 모른다. 직접 가서 듣지는 못하지만 ㉣ 본 것만으로도 마음이 느긋해지는 것 같았다.</p>			

- ① ㉠은 어휘가 잘못 사용되었으므로 '비추기도'로 바꾼다.
- ② ㉡은 글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한다.
- ③ ㉢은 호응을 고려하여 '생각해 보는'으로 고친다.
- ④ ㉣은 시간 표현의 자연스러움을 고려하여 '듣는다면'으로 바꾼다.
- ⑤ ㉤은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되어 있으므로 '악보를'을 삽입한다.

11. <보기>를 바탕으로 어미의 선택 기준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ㄱ. 동수는 책을 빌리{러/려고/고자} 도서관에 갔다.
 ㄴ. 신간 도서를 빌리{러/*려고/*고자} 도서관에 가자.
 ㄷ. 동수는 책을 빌리{*러/려고/고자} 도서관에 예약을 했다.
 ㄹ. 영희는 그를 안 만나{*러/려고/고자} 집으로 돌아갔다.
 ㅁ. 지금 공원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러/려고/*고자}?

*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

- ① ㄱ과 ㄴ을 보니 해당 어미 뒤가 어떤 종류의 문장인지를 고려해야 해.
- ② ㄱ과 ㄷ을 보니 해당 어미 뒤에 오는 서술어에 '이동'의 뜻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해.
- ③ ㄱ과 ㄹ을 보니 해당 어미 앞이 부정문인지를 고려해야 해.
- ④ ㄱ과 ㅁ을 보니 해당 어미가 종결 어미로도 쓰일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해.
- ⑤ ㄷ과 ㄹ을 보니 해당 어미 앞뒤 절의 주어가 같은지를 고려해야 해.

12.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ㄱ~ㄷ에 쓸 수 있는 말의 기본형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 기>

말과 말이 결합할 때에 제약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가령 '눈, 우박, 서리'를 써서 기상 현상을 나타내는 문장을 만들어 보자. '눈'에 대해서 '내리다, 오다'는 쓰지만 '떨어지다'는 쓰지 않는다. '우박'에 대해서 '내리다, 떨어지다'는 쓰지만 '오다'는 쓰지 않는다. '서리'에 대해서 '내리다'는 쓰지만 '오다, 떨어지다'는 쓰지 않는다.

- 우리는 그가 범인일 것이라고 결론을 (ㄱ).
- 이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죽는 것으로 결말을 (ㄴ).
- 그는 그 저택을 사들이기로 결정을 (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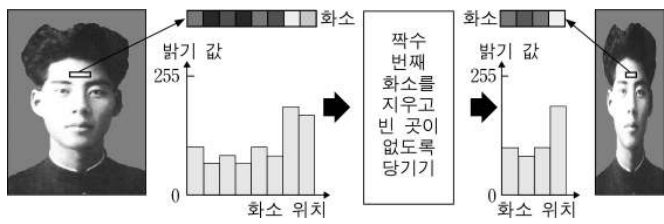
- | | ㄱ | ㄴ | ㄷ |
|---|-----|-----|-----|
| ① | 짓다 | 맺다 | 하다 |
| ② | 짓다 | 내리다 | 맺다 |
| ③ | 맺다 | 하다 | 내리다 |
| ④ | 하다 | 짓다 | 내리다 |
| ⑤ | 내리다 | 하다 | 짓다 |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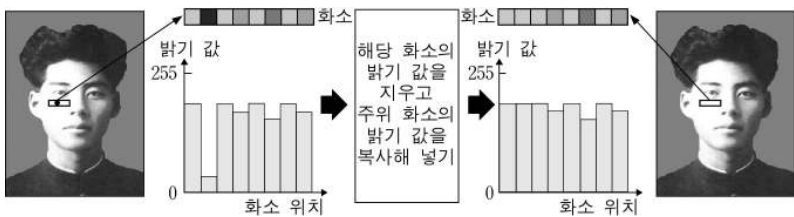
누구나 좀 더 멋있게 보이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꿈은 적어도 디지털 사진 속에서라면 쉽게 이룰 수 있다.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실제 모습보다 날씬해 보이도록 할 수도 있고 주근깨를 지워서 달리 보이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일은 대부분 디지털 영상 처리라는 기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은 컴퓨터 안에서 영상을 구성하는 점인 수많은 화소의 집합으로 저장되고, 각각의 화소는 숫자로 표현된 밝기 값과 색상 값을 가진다. ㉠ 일반적으로 디지털 영상 처리란 각 화소의 밝기 값과 색상 값에 일정한 규칙을 적용하여 영상의 밝기와 색상은 물론 크기, 모양, 질감까지도 변화시키는 기술을 말한다.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8비트 해상도, 즉 0부터 255까지의 밝기 값만 가지는 흑백 영상이 있다고 하자. 이때 밝기 값 0은 완전한 검은색이고 255는 완전한 흰색이 된다. 날씬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영상의 세로는 그대로 두고 가로로 1/2 크기로 줄이려면 <그림 1>과 같이 홀수 번째 화소는 그대로 두고 짝수 번째 화소를 없앤 다음, 빈 곳이 없도록 왼쪽으로 당기면 된다. 또 검은 점으로 표시된 주근깨를 지우고 싶다면 <그림 2>와 같이 해당 화소의 밝기 값을 지우고, 지운 자리에 주위에 있는 화소의 밝기 값을 복사해 넣는다. 이렇게 하면 주위 화소와 차이가 나던 검은 점이 주위와 똑같은 밝기 값을 가지게 되어 주근깨가 없어진다.



<그림 1>



<그림 2>

디지털 영상 처리는 간단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영상에 있는 붉은색 사과를 초록색으로 칠하고 싶다면 사과에 해당하는 모든 화소에서 밝기 값은 그대로 두고 붉은색 색상 값을 초록색 색상 값으로 바꿔주면 된다. 뱀의 영상에 머리를 하나 더 달아서 머리가 두 개인 괴물 뱀을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에는 머리를 추가하고 싶은 부분에 해당하는 화소의 밝기 값과 색상 값을 지운 다음, 원래 영상에서 뱀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화소의 밝기 값과 색상 값을 복사해 넣으면 된다.

디지털 영상 처리는 군사 목적에서 과학 수사에까지 다양한 분야에 널리 적용된다. ㉡ 첩보 위성이 찍은 어떤 영상은 화소의 밝기 값이 0에 가까워 어둡고, 밝기 값의 차이가 별로 없어 선명하지도 않지만, 이 기술을 적용하면 밝고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다. 과학 수사 요원이 범인의 희미한 지문만을 채취

하고도 회심의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이 기술을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디지털 영상 처리 소프트웨어가 일반화되면서 발생하기 시작한 위변조 등을 방지하는 일은 앞으로 남겨진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13. <보기>가 위 글의 집필 지침이라고 할 때, 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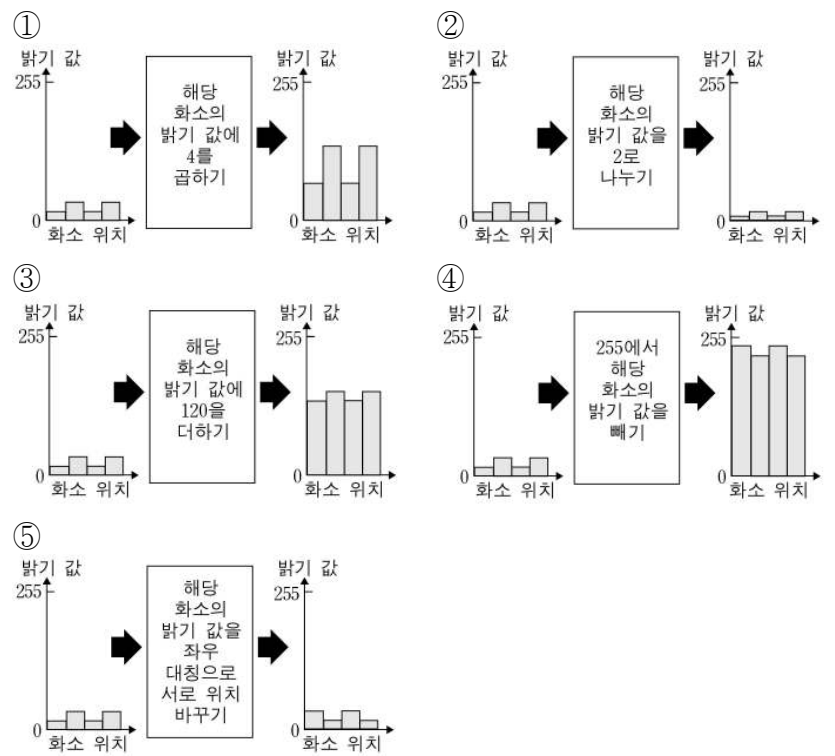
- <보 기>
- ㄱ. 실생활을 중심으로 설명할 것
 - ㄴ. 해당 기술의 개념을 제시할 것
 - ㄷ.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을 활용할 것
 - ㄹ. 기술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소개할 것
 - ㅁ. 사례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울 것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14. ㉠의 내용으로 보아 디지털 영상 처리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도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은?

- ① 독사진의 디지털 영상에 손질을 가하여 친구들과 함께 찍은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 ② 과일 바구니를 촬영한 디지털 영상에서 과일을 방금 딴 것처럼 싱싱해 보이도록 하였다.
- ③ 촬영하다가 손 떨림으로 인해 흐려진 디지털 영상에서 번짐을 제거하여 깨끗하게 하였다.
- ④ 팩시밀리에서 문서를 디지털 영상으로 바꾸어 전송한 다음, 다른 팩시밀리에서 출력되도록 하였다.
- ⑤ 오래된 사진을 디지털 영상으로 바꾼 다음, 변색되거나 흠집이 난 부분을 없애서 최근에 촬영한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15.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을 수행하는 과정에 가장 적합한 디지털 영상 처리 기술을 나타낸 것은? [3점]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영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신비화되고 통속화되는가, 영웅에 대한 기억이 시대에 따라 어떤 변천을 겪는가를 탐구하는 것은 ‘더 사실에 가까운 영웅’의 모습에 다가서려는 이들에게 필수적이다. 영웅을 둘러싼 신화가 만들어지고 전승되는 과정과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특히 국민 정체성 형성에 그들이 간여한 바를 추적함으로써, 우리는 영웅을 만들고 그들의 초상을 새롭게 덧칠해 온 각 시대의 서로 다른 욕망을 읽어 내어 그 시대로부터 객관적인 거리를 획득한다.

무릇 영웅이란 죽고 나서 한층 더 길고 ㉠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며, 그런 사후 인생이 펼쳐지는 무대는 바로 후대인들의 변화무쌍한 기억이다. 잔 다르크는 계몽주의 시대에는 ‘신비와 경건을 가장한 바보 처녀’로 치부되었지만,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집권기에 와서는 애국의 ㉡ 화신으로 추앙받기 시작했다. 민족주의의 성장과 더불어 그 숭배의 열기가 더 달아올라, 19세기 공화주의적 민족주의자들은 잔을 ‘프랑스의 수호자’이자 ‘민중의 딸’로 재창조했다. 국경을 넘어 20세기 여성 참정권자들에게 잔은 ‘전투적 페미니즘’의 상징이었고 한국에서는 ‘프랑스의 유관순 열사’로 기억되었다.

영웅에 대한 후대인들의 기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 추구하는 문제의식의 배경에는 ㉣ ‘기억의 관리’가 부와 권력의 분배 못지않게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인간의 기억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틀 내에서 형성되며,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된 특정한 사회 집단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기억의 문제는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집단적이며 사회적인 권력의 문제이다. 동시에 이는 기억과 ㉤ 표리 관계인 망각의 문제이기도 하다.

근대 역사에서 기억이 구성되고 가공되는 데 가장 중요한 단위는 ‘민족’이었다. 근대 역사학 자체의 탄생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민족의 과거’에 대한 기억에서 영웅은 중요한 기억의 터전을 차지해 왔다. 이때 영웅은 그저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에 그치지 않고 민족의 영광과 상처를 상징하는 육화된 기호로서 구성원에게 동일시할 대상으로 나타난다.

이때 영웅은 종종 ‘애국’의 덕목과 결부되었다. 한국에서도 봉건 시대에 충군의 이념에 충실했던 인물이 계몽 운동기에 들어서 구국의 영웅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박은식, 신채호 등 개화기 지식인들이 ‘민족정신’에 눈뜨면서 재발견한 이순신이나 을지문덕과 같은 영웅은 이제 ‘충군’이 아닌 ‘애국’을 ㉥ 지상 과제로 삼는다. 이 같은 근대의 영웅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의 ‘국민’으로 묶어 주는 상상의 원천이 되었다. 이렇게 영웅은 구성원 모두를 상하, 수평 관계 속에서 매개하고 연결한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미디어였다.

16.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 ① 역사는 익명의 대중이 이끄는 것이다.
- ② 역사는 현재의 세계를 목적으로 하여 진보해 온 과정이다.
- ③ 역사는 객관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과학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

- ④ 역사는 우연의 지배를 받으므로 필연적인 인과 관계로 파악되지 않는다.
- ⑤ 역사는 과거의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후대에 체계화된 지적 구성물이다.

17. ㉣의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마을에 있는 효자비를 재정비하여 효행을 선양한다.
- ② 국민에게 존경받는 역사적 인물을 지폐 도안에 활용한다.
- ③ 역사 소설을 읽고 실재한 사실과 문학적 허구를 가려 본다.
- ④ 중요 무형 문화재 보유자를 지정하여 고유의 문화를 보존한다.
- ⑤ 전쟁 박물관의 전시를 통해 국난 극복의 역사를 널리 알린다.

18. <보기>는 역사 동아리 학생들이 위 글을 읽은 후 토론한 내용이다. <보기>에서 위 글의 논지에 부합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영웅에 대한 각 시대의 평가는 곧 그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야.

ㄴ. 영웅을 만들어 유포하는 체제는 결코 좋은 체제가 아닌 것 같아.

ㄷ. 근대 국가의 집단 정체성 형성에 애국적 영웅이 중요한 역할을 했군.

ㄹ. 영웅의 고난과 승리는 대중에게 강력한 정서적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9. ㉠~㉥의 사전적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 사람의 생활이나 일의 진행이 곡절과 시련이 많고 변화가 심함.
- ② ㉡: 분을 받을 만한 대상.
- ③ ㉢: 근본까지 깊이 캐어 들어가 연구함.
- ④ ㉣: 사물의 겉과 속 또는 안과 밖을 통틀어 이르는 말.
- ⑤ ㉤: 가장 높은 위.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홍보 아내 그 말 듣고,
 “애고, 이게 웬 말인가? 그런대도 내가 알고 저런대도 내가 압네.”
 섰다 털썩 주저앉으며 가슴 광광 발 구르며 하는 말이,
 ㉠ “시아자씨도 야속하다. 재물만 생각하고 형제 윤기 저버리니 이런 법도 또 있는가. 무거불측 목공이도 이에서 더할 손가. 무궁무진 나의 설움 생각하니 측량없다. 애고애고, 내 일이야.”
 홍보 듣고 비감하여,
 ㉡ “이 울음 그만 우소. 속이 매워 못 들었네. 우리가 곤궁함은 모두 장부의 허물이라. 부끄럽기 측량없네. 우리도 설마 때를 만나 귀히 될 제 있을 테니 설위 말고 살아 보세.”
 이날부터 홍보 품을 팔 제, 상하 평전 지심 매기, 전세 대동방아 찢기, 북경 장사 편지 전하기, 상부군의 대상 매고, 이집 저집 나래 엮기, 낡은 집에 토담 쌓고, 새집 짓고 왕토하기, 한 말 두 말 마질하고, 여각 주인 말짐 신기, 오 푼 받고 마칠 걸고, 두 푼 받고 쥐구멍 막기, 닷 냥 받고 송장 치기, 날로 벌고 달로 벌어 아무리 극력으로 벌어도 여러 식구 살릴 일이 전혀 없어 곤궁으로 지내더니, 하루는 홍보가,
 “내 갓망건 두루마기 내오소. 오늘날은 읍내를 잠깐 들어갈 수밖에는 수가 없네.”
 “읍내는 무엇하러 가랴시오?”
 “환곡(還穀) 호방(戶房)과 집안끼리 아는 사이니 쌀섬이나 타다 먹세.”
 “그것 무슨 말씀이요? 환곡미는 국곡(國穀)인데, 먹을 때는 좋다 하고 갓을 때는 어찌 갓게?”
 ㉢ “여보소, 그 말 마소. 갓다 갓다 못 갓으면 몽둥이 서넛 맞기로 관계있다. 형님께로 떠넘기세.”
 (중략)
 “먹고 노니 종소마는 그 돈이 웬 돈이요?”
 “자네 이 말을 천기누설 하지 마소. 읍내를 가서 환곡 호방을 보았더니 나를 보고, ‘병영으로 매품 팔러 가려요?’ 하기에, 돈 삼십 냥 받고 별도로 마삿 닷 냥까지 받아 왔네.”
 홍보 아내 이 말 듣고,
 ㉣ “애고, 이게 웬 말이요. ‘하늘은 복록이 없는 사람은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키우지 않는다.’고 하옵나니, 모진 목숨 사는 대로 살 것이지 남의 죄로 매 맞을까. 마오 마오, 가지 마오.”
 홍보 하는 말이,
 “어허, 그거 방정이라고. 불기 놀려 쓸 데 있다.”
 “그러하면 불기가 다 구실이 있소?”
 “내 이를 테니 들어보소. 삼정승 하였으니 평교자에 앉아 볼까. 육조 관서 하였으니 초헌 위에 앉아 볼까. 양국대장 하였으니 장대(將臺) 위에 앉아 볼까. 팔도 방백 하였으니 선화당에 앉아 볼까. 각읍 수령 하였으니 동헌 좌기 하여 볼까. 좌수별감 하였으니 행사당에 앉아 볼까. 이방 호장 하였

[A] 으니 각청 수석 앉아 볼까. 장안 일색 명기 되어 승교 위

에 앉아 볼까. 만금 거래 상고 되어 부담마에 앉아 볼까. 이내 몸 궁곤한데 매품이나 팔아먹지 불기 놀려 쓸 데 있나. 자네 내 말 들어 보소. 그 돈 삼십 냥 벌어다가 착한 사람 맡겨 두면 이리저리 늘리어서 큰 아들은 장가들이고 티끌 모아 태산으로 그렇저렇 살아 보세.”
 홍보 자식들이 이 말 듣고 벌 때 되듯 하더니만,
 “허허 아버지. 그 돈 많이 받거들랑 풍안(風眼)* 한 벌 사다 주오.”
 “이 자식, 풍안 무엇하려느냐?”
 그놈 하는 말이,
 “부자간이라도 속을 몰라주니 답답하지요. 이월 동풍 부는 때에 뒷간 출입 다니려면 못사람의 발길에 눈에 티가 들어 다닐 수 없어 그리하지요.”
 또 한 놈이 나왔더니,
 “아버지, 나는 송아지 한 마리 사다 주오.”
 홍보 좋아라고,
 [B] “기특한 내 아들이야. 장래 살림은 잘하겠구나. 송아지는 무엇 할래?”
 “한 마리만 사다 주면 모닥불에 구워 먹게요.”
 “어 그놈, 허망한 놈이로고. 저리 가거라.”
 또 한 놈이 썩 나오며,
 “아버지, 나일랑은 양피 조끼에 통대모 장도(粧刀) 비단 꽃신 한 벌 사다 주오.”
 “네 이 자식, 대모 장도 얻다 찰래?”
 “찰 데 없으면 갈비 뚫어 차지요.”
 홍보 아내 곁에 섰다 여러 자식들을 호통하여 물리치니, 홍보 하는 말이,
 ㉤ “요런 몫쓸 일도 있는가. 개암쪽 만한 불기짜에 그세에 시장판을 벌였구나. 그만두어라. 많이 사다 주마.”
 - 작자 미상, 「박홍보전」 -
 * 풍안: 바람과 티끌을 막으려고 쓰는 안경.

20. 위 글에 나타난 당대의 사회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자라도 죄를 지으면 스스로 형벌을 받아야 했다.
 - ② 아이들이 신문물과 치장거리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 ③ 관가에서 부담 없이 곡식을 빌려 주는 제도가 있었다.
 - ④ 황금만능 풍조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널리 퍼져 있었다.
 - ⑤ 노동을 통해 빈부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21. [A]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선의 빠른 이동을 통하여 긴장을 조성한다.
 - ② 동일한 구조의 문장을 중첩하여 리듬감을 살린다.
 - ③ 신체 부위를 소재로 하여 해학적 효과를 자아낸다.
 - ④ 실현되기 어려운 일들을 열거하여 궁한 신세를 드러낸다.
 - ⑤ 관용 표현을 이용하여 주인공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22. <보기>의 내용을 참조할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판소리계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얼핏 평면적으로 보이지만, 작품을 세심하게 살펴보면 그 말이나 행동에 여러 층위의 심리적 요소가 작용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하나의 상황에 서로 다른 심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양상을 읽어 내는 것은 판소리계 소설의 문학성을 이해하는 요건 가운데 하나이다.

- ① ㉠: 형제간의 우애를 저버린 시아주버니에 대한 원망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애가 함께 나타난다.
- ② ㉡: 아내의 심정을 이해하고 동조하는 마음과 가장 노릇을 못하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얽혀 있다.
- ③ ㉢: 특별한 해결책이 없어 걱정하는 마음과 형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함께 나타난다.
- ④ ㉣: 남편이 매 맞으러 가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함께 나타난다.
- ⑤ ㉤: 철없이 행동하는 자식들에 대한 답답한 마음과 그들을 어떻게든 건사하고자 하는 책임감이 함께 나타난다.

23. [B]의 상황에 가장 잘 어울리는 한자성어는? [1점]

- ① 동가홍상(同價紅裳) ② 동문서답(東問西答)
- ③ 동병상련(同病相憐) ④ 동분서주(東奔西走)
- ⑤ 동상이몽(同床異夢)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영화의 역사는 신기한 눈요깃거리라는 출발점을 지나 예술적 가능성을 실험하며 고유의 표현 수단을 발굴해 온 과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미학적 차원의 논쟁과 실천이 거듭되었다. 그 중 리얼리즘 미학의 확립에 큰 역할을 한 인물로 프랑스 영화 비평가 바쟁이 있다.

바쟁은 ‘미라 콤플렉스’와 관련하여 조형 예술의 역사를 설명한다. 고대 이집트 인이 만든 미라에는 죽음을 넘어서 생명을 길이 보존하고자 하는 욕망이 깃들여 있거니와, 그러한 ‘복제의 욕망’은 회화를 비롯한 조형 예술에도 강력한 힘으로 작용해 왔다고 한다. 그 욕망은 르네상스 시대 이전까지 작가의 자기표현 의지와 일정한 균형을 이루어 왔다. 하지만 원근법이 등장하여 대상의 사실적 재현에 성큼 다가서면서 회화의 관심은 복제의 욕망 쪽으로 기울게 되었다. 그 상황은 사진이 발명되면서 다시 한 번 크게 바뀌었다. 인간의 주관성을 배제한 채 대상을 기계적으로 재현하는 사진이 발휘하는 모사의 신뢰도는 회화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사진으로 인해 조형 예술은 비로소 복제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영화의 등장은 대상의 재현에 또 다른 획을 그었다. 바쟁은 영화를, 사진의 기술적 객관성을 시간 속에서 완성함으로써 대상의 ㉠살아 숨 쉬는 재현을 가능케 한 진일보한 예술로 본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재현이 가능해진 결과, ㉡더욱 닮은 지문(指紋) 같은 현실을 제공하게 되었다. 바쟁에 의하면 영화와 현실은 본질적으로 친화력을 지닌다. 영화는 현실을 시간적으로 구현한다는 점에서 ㉢현실의 연장이며, 현실의 숨은 의미를 드러내고 현실에 밀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현실의 정수이다. 영화의 이러한 리얼리즘적 본질은 그 자체로 심리적, 기술적, 미학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

바쟁은 형식주의적 기교가 현실의 복잡성과 모호성을 침해하여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현실의 참모습을 변조하는 과도한 편집 기법보다는 단일한 숫*을 길게 촬영하는 롱 테이크 기법을 지지한다. 그것이 사건의 공간적 단일성을 존중하고 ㉤현실적 사건으로서의 가치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전경에서 배경에 이르기까지 공간적 깊이를 제공하는 촬영을 지지한다. 화면 속에 여러 층을 형성하여 모든 요소를 균등하게 드러냄으로써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할 수 있으며 관객의 시선에도 자유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화는 현실을 겸손한 자세로 따라가면서 해석의 개방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믿음, 이것이 바쟁이 내건 영화관의 핵심에 놓여 있다. 그 관점은 수많은 형식적 기교가 발달한 오늘날에도 많은 지지를 얻으며 영화적 실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 숫: 카메라가 한 번 촬영하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의 연속된 한 화면 단위.

24. 위 글에 나타난 ‘바쟁’의 생각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조형 예술의 역사에는 ‘미라 콤플렉스’가 내재되어 있다.
- ② 영화는 회화나 사진보다 재현의 완성도가 높은 예술이다.
- ③ 영화는 현실을 의도적으로 변형하고 재구성하는 예술이다.
- ④ 영화는 현실의 풍부함과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술이다.
- ⑤ 사진은 회화가 표현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25. ㉠~㉥ 중 문맥상 지시하는 대상이 다른 하나는?

- ① ㉠ ② ㉡ ③ ㉢ ④ ㉣ ⑤ ㉤

26. 위 글에 동조하는 감독이 영화를 제작하였다. 이 영화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편집을 자제하고 있구나.
- ② 현실을 대하는 것 같은 공간적 깊이감을 보여주는구나.
- ③ 대상을 왜곡할 수 있는 기교를 배제하려고 노력하는구나.
- ④ 숫의 길이를 길게 하여 현실의 시간과 유사한 느낌을 주는구나.
- ⑤ 화면 속의 중심 요소에 주목하게 하여 관객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구나.

27. <보기>의 내용을 근거로 볼 때, 단어의 구성이 ㉠과 같은 것은?

<보 기>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말이다. 어근에는 여러 가지 품사의 말이 쓰일 수 있다. 가령 ‘가위질’은 접미사 ‘-질’이 명사 어근 ‘가위’에 붙은 말이고, ‘헛디디다’는 접두사 ‘헛-’이 동사 어근 ‘디디-’에, ‘새까맣다’는 접두사 ‘새-’가 형용사 어근 ‘까맣-’에 붙어 만들어진 말이다.

- ① 길이 ② 기쁨 ③ 털보
- ④ 오뎅이 ⑤ 달리기

[28~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노래가 낮기는 그중 나아도
구름까지 갔다간 되돌아오고,
네 발굽을 쳐 달려간 말은
바닷가에 가 밋어 버렸다.
활로 잡은 산돼지, 매[鷹]로 잡은 산새들에게도
이제는 벌써 입맛을 잃었다.
꽃아. 아침마다 개벽하는 꽃아.
네가 좋기는 제일 좋아도,
물낮바닥에 얼굴이나 비취는
해염도 모르는 아이와 같이
나는 네 닫힌 문에 기대섰을 뿐이다.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벼락과 해일만이 길일지라도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원주(原註)] 사소: 사소는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어머니. 처녀로 잉태하여, 산으로 신선수행(神仙修行)을 간 일이 있는데, 이 글은 그 떠나기 전 그의 집 꽃밭에서의 독백.

- 서정주, 「꽃밭의 독백-사소(娑蘇) 단장」-

(나) 어둠이 오는 것이 왜 두렵지 않으리
불어 닳치는 비바람이 왜 무섭지 않으리
있들 더러 썩고 떨어지는 어둠 속에서
가지들 휘고 꺾이는 비바람 속에서

보인다 꼭 잡은 너희들 작은 손들이
손을 타고 흐르는 숨죽인 흐느낌이
어둠과 비바람까지도 삭여서
더 단단히 뿌리와 몸통을 키운다면
너희 왜 모르랴 밝는 날 어깨와 가슴에
더 많은 꽃과 열매를 달게 되리라는 걸
산바람 바닷바람보다도 짓궂은 이웃들의
비웃음과 발길질이 더 아프고 서러워
산비알과 바위너설에서 목 움츠린 나무들이
다시 고개 들고 절로 터져 나올 잎과 꽃으로
숲과 들판에 떼 지어 설 나무들이

- 신경림, 「나무를 위하여」-

(다) 사립을 짓혀 쓰고 망혜를 조여 신고,
조대(釣臺)*로 내려가니 내 노래 한가하다.
원근 산천이 홍일(紅日)을 띄웠으니,
만경창과는 모두 다 금빛이라.
낙시를 드리우고 무심히 앉았으니,
은린옥척(銀鱗玉尺)*이 절로 와 무는구나.
구태여 내 마음이 취어(取魚)가 아니로다 지취(志趣)를
취함이라.
낙대를 떨쳐 드니 사면에 잠든 백구(白鷗),
내 낙대 그림자에 저 잡을 날만 여겨 다 놀라 날겠구나.
백구야 날지 마라 너 잡을 내 아니다.
네 본디 영물이라 내 마음 모를소냐.
평생의 곱던 입을 천 리에 이별하고,
사랑은커니와 그리움을 못 이기어,
수심이 첩첩하니 마음을 들 데 없어,
흥 없는 일간죽(一竿竹)을 실없이 드렸은들,
고기도 상관 앓거늘 하물며 너 잡으랴.
그래도 내 마음을 아무도 못 믿거든,
너 가진 긴 부리로 내 가슴 쪼아 헤쳐,
흥중의 붉은 마음 보면은 아오리라.
공명도 다 던지고 성은을 갚으려니,
갚을 법도 있거니와 이 사이 일 없으니,
성세(盛世)에 한민(閭民)* 되어 너 좇아 다니려니,
날 보고 날지 마라 네 벗님 되오리라.

- 안조원, 「만언사」-

- * 조대: 낙시를 하는 곳.
- * 은린옥척: 모양이 좋고 큰 물고기.
- * 한민: 한가로운 백성.

28.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의 실상에 어울리는 다양한 색채어를 사용하고 있다.
- ②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 ③ 정형적인 운율을 살려 시적 안정감을 확보하고 있다.
- ④ 명암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유장한 어조로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29. (가)와 (다)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다)	시어의 의미와 기능
①	바닷가	조대	화자가 현재 머무는 장소
②	산새	은린옥척	화자의 지향에서 벗어나 있는 대상
③	개벽	성세	화자의 처지가 변화하는 계기
④	물낫바닥	그림자	화자가 수행하는 자기 성찰의 매개물
⑤	아이	벗님	화자가 부러워하는 대상

30. (나)와 (다)의 시상 전개 방식을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와 (다) 모두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며 시상을 전개한다.
- ② (나)와 (다) 모두 계절의 변화를 축으로 삼아 시상을 전개한다.
- ③ (나)는 (다)와 달리 여러 대상으로 관심을 옮겨 가며 시상을 전개한다.
- ④ (나)는 시각적 이미지를, (다)는 청각적 이미지를 위주로 시상을 전개한다.
- ⑤ (나)는 시적 화자의 심리 묘사를, (다)는 외부 대상 묘사를 위주로 시상을 전개한다.

31. 시인이 <보기>의 옛 기록을 바탕으로 (가)를 썼다고 할 때, 창작 과정을 추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경주 선도산(仙桃山)에 신모(神母)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사소’라 했다. 일찍이 신선술을 터득하여 멀리 바다 건너 서쪽 나라로부터 해동(海東)으로 들어왔다. 술개가 날아가 내리는 곳에 집을 지으라는 계시를 받고서 선도산에 정착하여 신선이 되었다. 사소가 처음 삼한 땅에 이르러 자식을 낳으니, 그가 동국(東國)의 첫 왕이 되었다. 무릇 혁거세와 알영의 유래를 말하는 것이리라.

- ① ‘사소’의 내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보기>를 새롭게 해석했군.
- ② <보기>에 없는 ‘노래’와 ‘구름’ 같은 시어로 바다 건너 고향을 그리는 ‘사소’의 심정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어.

- ③ ‘꽃’은 시적 주제를 부각하기 위해 <보기> 밖에서 가져온 소재야.
- ④ <보기>와 달리 ‘사소’가 ‘처녀로 잉태’했다고 한 것은 ‘사소’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설정이야.
- ⑤ <보기>를 근거로 원주를 붙인 데에는 원주를 참조하여 시를 이해하기 바라는 시인의 의도가 담겨 있어.

32. (나)의 시적 화자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경계하고 있다.
- ② 작은 존재들의 연대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시련을 극복한 대상을 격려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④ 과거의 고난 체험에 대한 관조적 심정을 보여주고 있다.
- ⑤ 약자들에게 외부의 도움에 대한 열린 자세를 권고하고 있다.

33. <보기>의 ㉠~㉤ 중 (다)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은?

—<보 기>—

옛사람들에게 ‘유배(流配)’는 무엇이였을까? 유배 가사를 통해 볼 때, 그것은 ㉠ 외롭고도 힘든 격리인 동시에 ㉡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계기이기도 했다. 귀양살이의 심경은 흔히 ㉢ 자연물을 매개로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형태로 정형화되었지만, 때로는 자기 부정이나 ㉣ 적대자에 대한 원망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 떠나온 곳에 마음을 두고 복귀를 욕망하는 모습을 찾아보는 것 또한 어렵지 않다. 이러한 다양한 면모가 엮히는 데에 유배 가사의 묘미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파수꾼 가 북소리 중지! 이리 떼는 몰려갔다.

파수꾼 다 정말 이리가 있다구 믿으세요?

파수꾼 나 보렴, 방금도 이리 떼가 오질 않았니? 그렇지

[A] 않다면 내가 왜 양철북을 치며 평생을 보냈겠느냐? 서운하다. 아무리 아픈 애라지만 너무 심한 말을 하는구나.

파수꾼 다 죄송해요. 하지만 어쩔 그 많은 나날을 단 한 번도 의심 없이 보내셨어요?

파수꾼 나 넌 그렇게도 무섭니, 이리가?

파수꾼 다 오히려 이리가 있다구 믿었던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숨기라도 했으니까요. 땅에 엎드리면 아늑하게 느껴졌어요. 지금은요, 이리가 없으니 땅에 엎드려야 아무 소용 없구요, 양철북도 쓸모가 없게 됐어요. 오직 이제는 제가 본 그 사실만을 말하고 싶어요.

해설자, 촌장이 되어 등장. 검은 옷차림.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과 정중한 태도. 낮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한다.

(중략)

촌장 오다 보니까 저쪽 뒷에 이리가 치어 있습니다.

파수꾼 나 이리요? 어느 쪽이죠?

촌장 저쪽요, 저쪽. 짙레 덩굴 밑이던가요…….

파수꾼 나 드디어 잡는군요!

‘파수꾼 나’ 퇴장. 촌장은 편지를 꺼내 ‘파수꾼 다’에게 보인다.

촌장 이것, 내가 보낸 거니?

파수꾼 다 네, 촌장님.

촌장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도중에서 읽어 본 모양이더라. ‘이리 떼는 없구, 흰 구름뿐.’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 조금 후엔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물론 네 탓은 아니다. 넌 나 혼자만을 와 달라구 하지 않았니? 몰려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청객이지. 더구나 어떤 사람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더라.

파수꾼 다 도끼는 왜 들고 와요?

촌장 망루를 부순다고 그런단다. ‘이리 떼는 없구, 흰 구름뿐.’ 이것이 구호처럼 외쳐지고 있어.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고 딸기라도 따러 가고 싶다. 난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알고 있거든. 이리 떼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엔 으레히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

파수꾼 다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촌장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니?

파수꾼 다 촌장님도 아시는군요?

촌장 난 알고 있지.

파수꾼 다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 뒷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촌장 말해 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파수꾼 다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아요? 사람들도 그렇죠! ‘이리 떼가 몰려온다.’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는데 그게 더 좋아요?

촌장 애야, 이리 떼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

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 떼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그게 뭔지 넌 알거나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 주는 거란다.

- 이강백, 『파수꾼』 -

38.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극중 시간의 흐름이 전환되고 있다.
- ② 공간적 배경은 황야에 위치한 마을이다.
- ③ 무대 밖의 사건이 무대 내의 사건에 영향을 준다.
- ④ 등장인물들은 서로에게 협력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 ⑤ 중심 갈등은 ‘파수꾼 나’와 ‘파수꾼 다’ 사이에 나타난다.

39. <보기>를 참조하여 [A]를 서사극으로 공연하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정통 연극은 무대의 모든 사건과 인물이 현실 그대로라는 것을 강조한다. 무대 위의 험릿은 진짜 험릿이지 특정한 배우가 아니며 무대 위의 상황도 현실의 상황인 것처럼 보여야 한다. 하지만 서사극은 현실과 극중 상황을 분리하여 관객을 관찰자로 만든다. 관객에게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연극’일 뿐이다. 그리고 그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서사극에서는 ‘낯설게 하기’의 기법을 활용하여, 일부러 무대 장치들을 노출하기도 하고 배우가 관객에게 극중 상황을 설명하기도 한다.

- ① 무대의 배경 그림이나 망루를 실감 나게 제작한다.
- ② 배우들의 표정에서 내면이 잘 드러나도록 조명을 활용한다.
- ③ ‘촌장’이 해설자의 역할도 맡고 있다는 점을 관객이 알게 한다.
- ④ 파수꾼들에게 각각 고유한 이름을 부여하여 개성을 드러낸다.
- ⑤ ‘파수꾼 다’는 역할에 어울리는 연기로 관객의 연민을 이끌어낸다.

40. 위 글의 ‘팻말’과 ‘딸기’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딸기’는 본연의 직무에 충실한 파수꾼에게 촌장이 제공하는 보상을 뜻한다.
- ② ‘팻말’은 촌장이 지난날을 돌아보며 자신의 가치관을 바꾸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 ③ ‘팻말’은 명분 뒤에 숨겨진 ‘딸기’라는 실리를 촌장이 차지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
- ④ ‘팻말’은 이리 떼라는 위협으로부터 ‘딸기’라는 공동체적 가치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 ⑤ ‘딸기’는 ‘팻말’이라는 금기와 이리 떼라는 위협 아래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나타낸다.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극의 빙하는 과거 지구의 대기 성분과 기온 변화에 관한 기초 자료를 생생하게 보존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빙하를 분석함으로써 지구 온난화 등 지구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중요한 정보를 얻고 있다.

남극의 표층에 쌓인 눈은 계속 내리는 눈에 덮이면서 점점 깊이가 매몰되고 그에 따라 눈의 밀도는 점차 증가한다. 일정한 깊이에 이르면 상부에 쌓인 눈이 가하는 압력 때문에 하부의 눈은 얼음으로 변형된다. 이때 눈 입자들 사이에 들어 있는 공기가 얼음 속에 갇히게 되고, 얼음이 두꺼워지면서 상부의 얼음이 가하는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클라트레이트 수화물*이 형성된다. 이 속의 기포들은 당시 대기의 기체 성분을 그대로 가지게 된다. 기포가 포함된 얼음을 시추하여 녹이면 원래의 상태로 바뀌고, 이때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정밀 기기를 사용하여 그 속의 기체 성분을 분석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산화탄소나 메탄 등 과거 지구의 대기 성분과 농도를 알아낼 수 있다.

그러나 빙하 속 기포 내의 대기 성분 정보를 통해 그 당시의 기온을 알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과거의 기온을 조사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빙하를 구성하는 물 분자의 산소나 수소의 동위원소비를 이용하는 것이다. 동위원소란 원자 번호는 같지만 원자량이 서로 다른 원소를 말하는데, 산소의 동위원소로는 원자량이 16인 산소(^{16}O)와 원자량이 18인 산소(^{18}O)가 있다. 남극 빙하를 구성하는 물 분자들의 산소 동위원소비($^{18}\text{O}/^{16}\text{O}$)는 눈으로 내릴 당시의 기온 변화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하며 여름과 겨울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그 증감은 일 년의 주기를 갖는다. 오늘날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산소 동위원소비의 증감은 기온 변화와 거의 정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계를 적용하여 빙하가 만들어진 당시의 기온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다.

빙하에 대한 최근 연구는 산소의 동위원소비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나 메탄의 농도 변화도 기온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 기체들의 농도가 증가하면 기온이 올라가고 반대로 농도가 감소하면 기온이 내려간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빙하로부터 알게 된 과거 이산화탄소와 메탄의 농도 변화 폭과 비교해 볼 때, 오늘날 이들의 농도는 우려할 만큼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클라트레이트 수화물: 고압과 저온의 조건에서 물 분자가 결합하여 생성된 빈 공간에 메탄, 이산화탄소, 질소 등 분자량이 작은 기체가 들어 있는 결정체.

41. 위 글의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한 표제와 부제는? [1점]

- ① 남극 빙하의 가치
 - 기후 변화의 기록 보관소
- ② 남극 빙하 이야기
 - 지구 온난화와 환경오염 실태
- ③ 빙하 연구의 현주소
 - 과학적 연구 성과와 전망

- ④ 남극, 거대한 실험실
 - 동위원소 연구의 현황
- ⑤ 남극 빙하의 과거와 미래
 - 새로운 자원의 보고

42. 위 글을 바탕으로 과제를 수행할 때,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과제명: 1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이산화탄소 농도와 기온 변화 양상
- 조사 대상: 남극에서 시추한 빙하
- 조사 방법 및 내용
 -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기체 성분 조사
 - 산소 동위원소비를 이용한 기온 측정
 - 산소 동위원소비 증감의 주기성을 이용한 (㉠) 조사

- ① 생성 연대 ② 오염 정도 ③ 평균 강도
- ④ 결정 구조 ⑤ 전체 부피

43. 위 글과 <보기>를 이용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그림은 시추한 빙하의 일부분과 그것을 확대한 것이다.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ㄱ. 시추한 빙하에는 화산재가 포함되어 있다.
- ㄴ. 시추한 지점의 표층 부분 눈의 밀도는 0.3 g/cm^3 이다.
- ㄷ. 산소 동위원소비는 검은 띠 부분에서 증가하고 흰 부분에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 ① A에 해당하는 시기에 화산 활동이 있었을 것이다.
- ② B 지점이 C 지점보다 당시 기온이 낮았을 것이다.
- ③ 시추한 빙하 하부의 밀도는 0.3 g/cm^3 보다 클 것이다.
- ④ 시추한 빙하의 하부로 갈수록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증가할 것이다.
- ⑤ 깊이 50m인 지점보다 100m인 지점의 얼음이 먼저 만들어졌을 것이다.

[44~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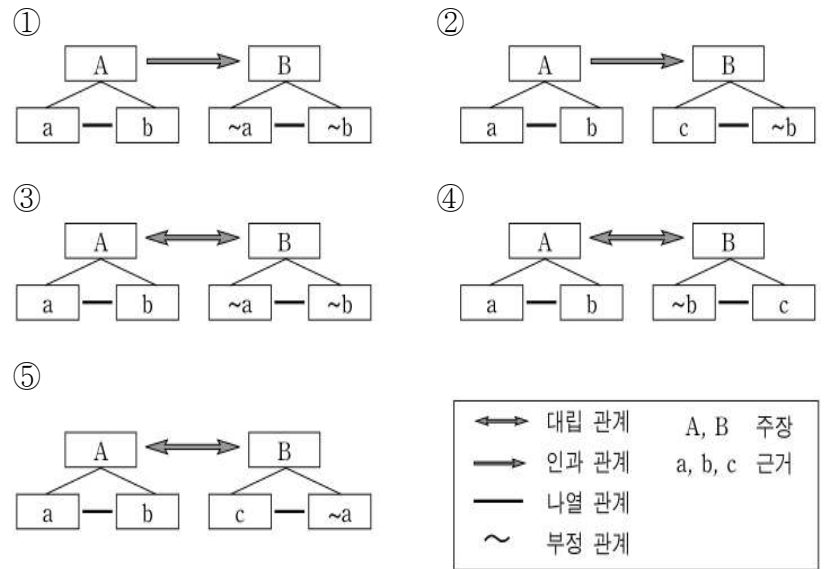
선거 기간 동안 여론 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조사 결과의 공표가 유권자 투표 의사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주장과, 공표 금지가 선거 정보에 대한 언론의 접근을 제한하여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찬성론자들은 먼저 ㉠ ‘밴드왜건 효과’와 ‘열세자 효과’ 등의 이론을 내세워 여론 조사 공표의 부정적인 영향을 부각시킨다. 밴드왜건 효과에 의하면, 선거일 전에 여론 조사 결과가 공표되면 사표(死票) 방지 심리로 인해 표심이 지지도가 높은 후보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열세자 효과에 따르면, 열세에 있는 후보자에 대한 동정심이 발동하여 표심이 그쪽으로 움직이게 된다. 각각의 이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여론 조사 결과의 공표가 어느 쪽으로든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공표가 갖는 부정적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공정한 여론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아직은 성숙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한다. 그리고 금권, 관권 부정 선거와 선거 운동의 과열 경쟁으로 인한 폐해가 많았다는 것이 경험적으로도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그 이유로 든다.

이와 달리 반대론자들은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알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알 권리는 국민이 의사를 형성하는 데 전제가 되는 권리인 동시에 국민 주권 실천 과정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사상 및 의견을 자유롭게 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권리이다. 그리고 이 권리는 언론 기관이 ‘공적 위탁 이론’에 근거해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이므로, 정보에 대한 언론의 접근이 보장되어야 충족된다. 후보자의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 등에 관한 여론의 동향 등은 이 알 권리의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언론이 위임받은 알 권리를 국민의 뜻에 따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론 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결국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논리이다. 또 이들은 조사 결과의 공표가 선거의 공정성을 방해한다는 분명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의 공표가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았음도 강조한다.

우리나라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선거 기간 내내 공표를 제한했던 과거와 비교해 보면 금지 기간이 대폭 줄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공표 금지에 대한 찬반 논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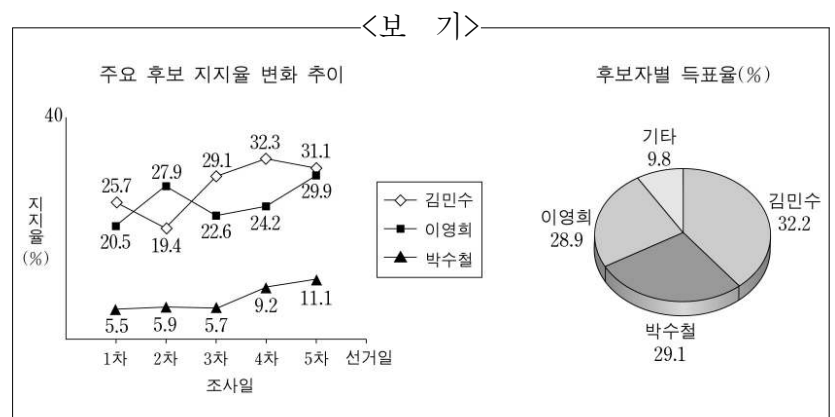
44. [A]와 [B]의 관계를 도식화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5. 위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언론 기관이 알 권리를 대행하기도 한다.
- ② 알 권리는 법률에 의해 제한되기도 한다.
- ③ 알 권리가 제한되면 표현의 자유가 약화된다.
- ④ 알 권리에는 정보 수집의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
- ⑤ 공표 금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알 권리는 강화된다.

46. ㉠을 바탕으로 <보기>를 적절하게 분석한 것은?



- ① 이영희 후보의 지지율과 득표율을 보니 밴드왜건 효과가 나타난 것 같군.
- ② 박수철 후보의 5차 조사 결과와 득표율을 보니 열세자 효과가 나타난 것 같군.
- ③ 2차와 3차 조사 사이에 김민수 후보에게 밴드왜건 효과가 나타난 것 같군.
- ④ 3차와 4차 조사 사이에 박수철 후보에게 밴드왜건 효과가 나타난 것 같군.
- ⑤ 김민수 후보와 이영희 후보의 득표율을 보니 열세자 효과가 나타난 것 같군.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둠이 짙어질수록 밤하늘에는 별들이 빙판(氷板)에 얼어붙은 구슬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찬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지나갈 때마다 낙엽이 우수수 발밑으로 떨어져 흩어졌다. 그는 [지금] 가로수에 기대어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무거운 마음이 좀처럼 가라앉지가 않았다. 그는 즈봉 포켓 속에 구겨 넣은 신문을 다시금 손으로 구겨 쥐었다. 어머니—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 순간 ‘아래는 아들의 소식을 듣고 실신한 노모’라는 ㉠ 신문 구절과 함께 노파의 주름진 얼굴이 어머니 얼굴과 겹쳐서

[A] 떠올랐다. 그러나 곧 ‘모두가 조국을 위해서다.’ 하는 음성이 그의 마음을 뒤덮고 지나갔다.

‘이미 우리는 ㉡ 조국을 위해서만이 있는 몸이다. 지금의 네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보다 더 보람 있는 하나를 위해서 하나를 버려야지.’

약 이 개월 전 일이었다. 그가 투신하고 있는 비밀결사에서는 한 사람을 암살하지 않으면 안 될 경지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바로 계획된 [그날 밤] 오랜 신병 끝에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그의 어머니가 숨겨 가고 있었던 것이었다.

클락슨 소리가 짧게 밖에서 또 한 번 울려 오고 있었다. 정각에서 삼십 분 전. 야광 초침이 파란 빛깔을 그으면서 아라비아 숫자가 나열된 동그란 원반 위를 움직이고 있었다. ㉢ 클락슨 소리가 다시 짧게 울렸다. 그는 묵묵히 고개를 들고 어둠과 마주 섰다.

“연기는 안 돼. 생각해 봐. 우리가 오늘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과 정력을 소비했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실패하는 경우엔 이미 우리들의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야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에서 [B] 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야. 지금 우리들은 삼이라는 성공 숫자 앞에 와 있다. 알겠지? 어머니는 우리가 맡을 태다. 조국을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버리기로 한 우리들이 아니냐.”

나직하면서도 몹시 초조한 음성이었다. 그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어머니의 신음 소리가 무겁게 방 안에서 울려 나오고 있었다.

(중략)

의식을 잃고 누워 있던 어머니는 방문이 부시시 열리는 소리에 눈을 떴다. 천장이 축 처져서 내려앉은 ㉣ 발 안은 더욱 답답하고 어두웠다. 그는 어머니 앞으로 조용히 다가가서 꿇어 앉았다. 고개를 약간 모로 숙히면서 아들 모습을 더듬어 가고 있는 그 눈빛은 다 꺼져 가는 모닥불처럼 희미하게 등잔불 빛에 반사되어 빛나고 있었다.

“어머니…….”

노파는 아들의 음성을 알아들었는지 고개를 간신히 흔들어 보이는 것 같았다.

“어머니, 의사가 왔었어요?”

그러나 노파는 가만히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는가 하여 다시 한 번 어머니 귀 가까이 입을 대고 물어보았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 표정을 조용히 지켜다. 험하게 주름져 간 입술이 움직여가는 것 같았다. 어머니 손이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는 듯하므로 그는 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으며 물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손만을 꼭 움켜쥐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곧 아들의 손을 끌어당겨 자기 뺨 위로 가져갔다. 그리고 이미 시선과 손의 감각만으로써는 아들을 느껴 볼 수가 없는 듯이 아들의 손을 자기 입술에 가져다 대어 보는 것이었다. 그는 가슴이 몽클 뜨거운 물결 속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는 순간 [떠칠 전] 집을 나갈 때 간신히 입을 열고 중얼거리던 어머니 말씀이 눈앞에 또렷이 아로새긴 것처럼 떠오르는 것이었다.

“언제 돌아오냐?”

“오늘은 못 돌아올 것 같아요. 저 옆집 아주머니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좀 돌아봐 달라고 돈도 드렸으니까 근심 마세요. 의사도 이따 저녁에 다시 한번 들를 거예요.”

“오냐.”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허공에 눈 주고 있다가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아들만을 위해서 있단다. 나이 들면 들어 갈수 [C] 록……. 그러나 아들이야 그럴 수 있겠니, 제 할 일이 더 중한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노쇠한 어머니의 애뜻한 기대를 깨닫지 못하는 바 아니었으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던 것이었다.

그는 [지금]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힌 채 자기 손을 끌어당겨 다 입술 위에 대고 어루만지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잠시 지켜보고 있었다. 얼마 후 자기 손을 어루만지던 어머니의 손은 맥없이 그대로 멈추어졌다. 그는 뼈만이 앙상한, 여윈 어머니의 손가락으로부터 어머니 눈 위로 시선을 옮겼다.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희미한 어머니의 눈빛, 마치 그것은 먼지 속에 퇴색하여 버린 ㉤ 유리알처럼 빛을 잃고 있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지금 아들의 모습을 바라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마음속에서 느끼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어두운 선을 그으며 지나갔다.

[다음날] 그는 밀회 시간을 어기고 그대로 어머니 곁에 있었다. 정오가 가까워서였다. 자동차의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집 앞에서 급히 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났다.

- 오상원, 「모반」 -

47. 위 글의 서술상의 시간을 <보기>와 같이 정리했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지금(1) → 그날 밤 → 며칠 전 → 지금(2) → 다음날

- ① ‘지금’(1)과 ‘지금’(2)는 공간적 배경이 다르다.
- ② ‘그날 밤’과 ‘지금’(2)는 시간적 배경이 동일하다.
- ③ ‘그날 밤’과 ‘며칠 전’ 장면은 서술자의 시점이 서로 다르다.
- ④ 실제 시간 순으로 배열하면 ‘며칠 전’이 가장 먼저이다.
- ⑤ ‘다음날’에는 새로운 사건의 발생이 암시되어 있다.

48. ㉠~㉣ 중 <보기>에서 설명하는 ‘이것’에 해당하는 것은?

—<보 기>—
‘이것’은 주체와 타자, 주체와 세계를 연결하는 사회적 통로이다. ‘이것’을 매개로 주체는 타자와 세계에 대한 앎을 확장하며, 그럼으로써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재인식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구성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동시성과 공공성을 특징으로 하는 ‘이것’은 현대소설에서 중요한 서사적 기능을 갖는 장치로 활용된다.

- ① ㉠ ② ㉡ ③ ㉢
- ④ ㉣

49. <보기>의 ㉠~㉣ 중 [A]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소설 읽기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일종의 여행이다. 우리를 안내하는 작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여행을 돕는다. 그는 ㉠ 상황을 요약하여 제시해 줌으로써 우리의 수고를 덜어 주기도 하고, ㉡ 개념적인 언어로 자신의 사상을 직접 피력하기도 한다. 그러나 집을 떠난 여행이 그렇듯이 소설을 읽는 여정 역시 순조롭지만은 않다. 작가는 ㉢ 외부 사물의 묘사로 복잡한 심리 상태를 암시하기도 하고, ㉣ 예상하지 못했던 극적인 반전으로 우리를 당황하게 하기도 한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50. [B]와 [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B]에서는 ‘그’가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 ② [B]에서는 ‘비밀결사’가 ‘그’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 ③ [C]에서는 ‘그’의 ‘할 일’에 대한 어머니의 불신을 읽을 수 있어.
- ④ [C]에서는 ‘그’를 만류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안타까운 심정을 읽을 수 있어.
- ⑤ [B]와 [C]의 두 목소리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의 심리를 읽을 수 있어.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